東亞日報
夕刊
六月三十日(火)

制裁案撤回는確實?
各聯盟國代表間에 私的折衝이頻繁
"侵略成果"는不承認

【제네바卄九日發電】[illegible]

伊、協調的覺書를 總會에正式提出
委任統治制를受諾?

【제네바二十九日發電】伊國政府는 [illegible]

에國皇帝의出席 總會에正式通告
俄然、一大波瀾을豫想
"祖國을爲하야最後奮鬪"

【제네바卄九日發電】[illegible]

豐台侮日事件 漸次로重大化形勢

【北平二十九日發同盟】[illegible]

事件眞相內容

【北平卄九日發同盟】[illegible] 廿六日午前九時四十分 [illegible]

海軍會議不參加 正式回答을手傳
藤井參事官英參事官訪問

【런던二十九日發電】日本大使館 [illegible]

에스갈에더條項 英國採用키로決定

【런던二十九日發電】英國政府[illegible]

國際元老會議 希臘代表提議

【제네바卄九日發電】[illegible]

에스칼래터條項 日米도同一均霑

【런던卄九日發電】英國政府가 [illegible]

中野正剛氏等 首相에게進言

【東京電話】東方會의 中野正剛 [illegible]

故近藤知事告別式

[illegible]

消息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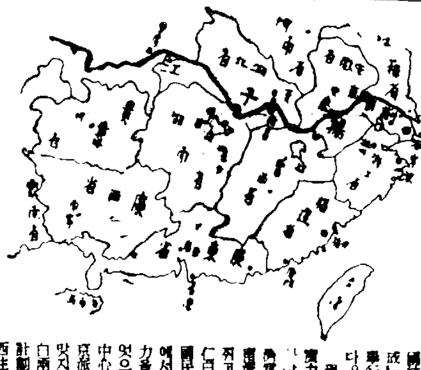
橫說竪說

[illegible]

南京、西南兩派의抗爭 (一)
二十餘年來로 反目疾視繼續
高永煥

南京、西南의葛藤

南京派와 西南派의 抗爭! 이 兩派의 葛藤은 [illegible] 中、이미 開始되었다는 [illegible] 傳하다. 그러면 南京政府와 西南派는 [illegible] 血鬪를 하고야 말것인가? 從來에는 [illegible] 겨우 「易姓革命」의 範圍를 넘지 못하는 中國에서 一九一一年의 辛亥革命에는 오직 「易姓」의 程度가 아니라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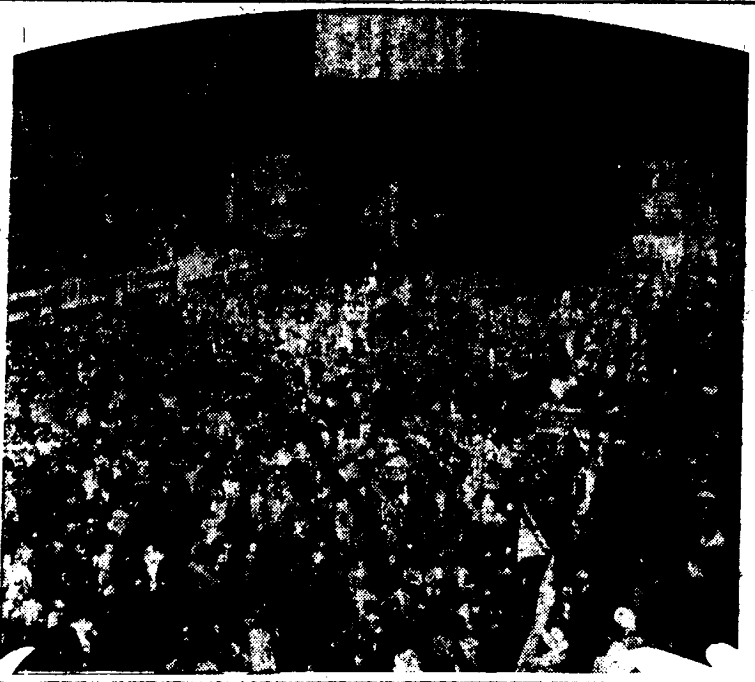


二十餘年來抗爭

[illegible]

胡漢民의反蔣熱

[illegible]



米共和黨全國代表者大會
次期大統領候補를指名

大統領候補를 指名決定한 共和黨大會는 지난六月八日부터 [illegible] 市公會堂에서 開催、十一日에는 大統領候補 [illegible] 十二日의 大會에서는 [illegible]

イマヅ는 다른殺虫劑에比하야 [illegible] 優秀
殺虫劑에比하야

イマヅ 蠅取粉 殺虫劑 芳香液
福當り
大阪市·大仁本町 株式會社 今津化學研究所

H.110.B

中風 高血壓 腦病
原因을알아、根本治療하는
「血液의大掃除療法」

[illegible]

各道의 土木事業費 總額一億五千萬圓

道別로 提出된 計劃案檢討하야 總督府에서 最後決定

총독부 내무국에서는 각지방의 토목사업계획을 제출토록 각도에 통첩하였든바 그의 계획안이 최근에 수집되었다.

그의 내용은 각도가 모다 적극적 계획이어서 그의 총예산은 一억五千만원정도에 달하고 있다.

현재 총독부내무국의 계획으로서는 약 六千만원정도의 총五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계속하엿으나 각도의 사업총액이 일룡이 초과되고 잇으므로 내무국에서는 위선 그 사업의 내용을 정사 검토한 후에 각도의 사업을 실행할터이라는데 경우에 따라서 원래五개년의 사업년한을 연장할는지도 모른다 한다.

京城新義州間 搬送電話完成

체신국(遞信局)에서는 경성 京城 평양(平壤) 신의주(新義州)간의 각 전화선 一회선의 증설공사가 작년말에 완성되엇슴으로 계속하야 이 회선의 반송식 전화(搬送式電話)를 증설하야 경성 신의주 新義州간에 반송회화가 가능하게 되엇슴으로 七월一일부터 개통하기로 되엇는바 그 준공과 함께 三회선을 증설하기로 하고 이를 공사중이엇는바 그준공과함께 七월一일부터 개통하기로 되엇슴으로 통화의 편리와 통신의 신속을 기하게 되리라 한다.

上海서 押來한 兩名은 金九部下로 判明

有吉公使 狙擊事件에도 連坐 今日平南警察部로 護送

【인천지국전화】 작보=三十일 인천항에 평안환(平安丸)에 상해(上海)로부터 호송되어 온 二명의 혐의자는 무엇이 되는데 이번에 호송되어온 두사람은 그 영사관 경찰부로부터 압송되어 온 혐의자이다. 二十九일밤 十시에 인천항구에 도착하였다. 여기실려온 중대범이 라함은 평남 출신으로 본명 한도원(韓道源)(二)과 함남 출신 김상국(金相國)(二)등 二명인데 방금 一단의 중요사건계속에 유치하여 다.

이들은 김구(金九)의 부하로 유길공사저격사건(有吉公使狙擊事件)에 관계하엿고 그들의 일은 부원하야 우관 편안에 (玉觀彬)사건에도 관계잇는 사람은 一단경기도 경찰부로 가서 조사되어 일단 압송되었다고 한다. 그들 체포당시에 압수한 증거서류는 보양이라 한다.

慶北產組事件 一審대로 求刑

判決言渡는 七月六日

【대구】 말성만흔 경북산업조합(慶北產組)사건은 대구지방법원 ...

◇江邊에 漂母들 昨日漢江에서

道計線確定되면 地區劃定에 着手

建築物을 六區로 制限

오랫동안 끄러오든 경성부의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劃令)에 의한 도로계획선은 최근 총독부에서 실지 착착진행하야 늦어도 七월하순까지는 확정발표하리라 한다.

이의 확정발표의 뒤를 이어 또다시 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에 의하야 각지구(地區)를 획정하야 건축물의 제한을 엄중히하리라는데 그 구획은

첫재=주거지구(住居地區)
둘재=상업지구(商業地區)
셋재=공업지구(工業地區)
넷재=풍치지구(風致地區)
다섯재=미관지구(美觀地區)
여섯재=미지정(未指定區)

으로 구분하야 각각 해당된 제한을 가하고 도시의 정연 또는 미관을 기하리라는것이다.

이에는 가지의 예를 따라 방침상에 근본적 관계가 잇으므로 해당부의 부근의 조건과 지형관계등을 참사하야 신중히 결정하리라는데 그의 발표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을 요하리라 한다.

朝共再建事件判決

最高五年役, 執猶四名

刑期同樣의 未決通算으로 十一名은 出獄될듯

【광주】 여수적색노동조합조선공산당 재건관련사건의 정종조(鄭鍾朝) 김영규(金永均) 이상수(李尙洙)등 十三명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 출판법위반 사건의 언도는 예정과같이 지난二十九일오후三시十분 광주지방법원 제一호 법정에서 안전(安田)재판장이 언도하였든데 최고五년 최저八개월 중 역에 집행유예四명이며 기나전부에게는 미결구류를 통산한 인도하얏으므로 검사가 부대공소만하지아니하면 十三명중에서 十一명은 석방되고 二명만은 부역케되리라는데 피고들의 언도는 여좌하다고한다.

被告	判決	未決通算及執猶
金龍煥	二年	同上百日通算
呂運鶴	同	同
張宇宗	同	同
朴來永	同	同
吳宇鴻	同	同
金永均	同	四年間執猶
金仁植	一年	三年間執猶
李昌洙	二年六月	七百日通算
朱元錫	一年六月	同上百日通算
文 錫	同上	
金石訓	一年	三年間執猶
李昌熙	八個月	同上
鄭鍾朝	五年	三百日通算

공소하야 대구복심법원에서 제三회로열린다는 복심공판은 출판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리취체령위반등죄명으로 제一호법정에서 중종사외인외와 순천읏(順天邑) 김상(江上) 검(釜山)에서올나온 김충원(金鍾)부산 최병부변호사의 열석으로 개정하야 연는데 개정벽두에 문제의 장본인 상주(尙州)도의원 산꾸현상(山口賢三)씨외부명을 중인으로심문하고 인회검사로부터 一심과같은 구형이잇은후 두변호사의 열렬한변론이잇난다음 판결언도의 기일은 오는七월六일로 정하엿다 한다.

一심판결은 다음과같다

鄭炳漢, 金漢明, 李相秀, 崔榮斗, 金德善, 各懲役六個月(三年間執行猶豫)各罰金三十圓

言語道斷한 少年 越牆하다 被逮

新行婚具적엇다고 削髮割耳劓刑

昌原에發生된神人共怒할私刑

【마산】 혼구(婚具)를 준비하여 왓다고 가진 이대를 다하는 시가에 잇을수없어 친정간 며누리를 쌔어버린잔 예불어다가 코와귀를 쌔어버린 잔인포악한 사형(私刑)사건이 창원(昌原)에서 발생되엇다.

媤家一族, 警察에 被捉

창원군 귀산면 귀곡리(昌原郡龜山面龜谷里) 천덕용(千德容)의 장가보내기위하여 금년二十五일을 동면 심리(深里)장필주(張弼珠)(二)의 딸 복개(福介)(一)를며누리로 그년봄에 다려갓으나 항상혼구가 적게 가져왓다고 아끗봉이와 며누리 복개의 대면을 이릏게 아니라 가진 모과사형이 날로심하여 견디다못해 친정으로 가버렷다한다 이를분개한 천덕용 내외와 동이는 지난二十五일밤에 복개를다시 끄러다가 시부와시모는 천신동원부원식이 도둑지고 남편 인봉이는 자위를가지고 달겨드러 머리를 낫낫치 가서버리고또다시 칼를가저다 코와귀를 비어버렷다는 돗기만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사실이엇다. 이소보를 듯고 찾어갓든 장펀주는 천덕용에게 ...

餘生悲觀한 七旬翁 鹹卵먹고 自殺

【평양】 평남 평원군한천면(平原郡漢川面)... 리(里)에 사는 ... 기회로 한다시에서 복어알을 사가지고 집으로돌아와 평생에 ... 먹고 자살하엿다고한다.

늘어가느니 汚物뿐!

府當局도 處置에 頭痛

推定量보다 實在量이 엄청나게만타 對策없으면 保健上問題

최근 경성부의 오물처치(汚物)문제가 말성되어 잇거니와 부당국에서도 그문제에 대하야서는 매 머리를 알코잇다 한다.

그 원인은 나날이 오물의 량이 격증하는것이라는바 지난 ...

蕩子를 따르든 "兵丁"

詐欺罪로 畢竟鐵窓行

楚山對岸에 出現

【신의주】 二十七일 밤 오전 신의주(新義州)... 三十여명은 의주(義州)대안 안동현제一구 동변성...

醫員의 鍼에 恐怖, 賭博에 失財코 憤慨

恥辱의 不義兒에 우는 寡婦

◇그들이 殺人犯이 되기까지

齷齪한 犯罪三態

세상에는 여러가지의 복잡한사정이 잇어서 生활사태로 그러하다가 와숙업과 범죄에 잇어서도 헤어날수없는 복잡한사정이 잇는것이다. 이제 경무국에 들어온보고에의하면 자기의 신병을 고처주려고 다리다은 의사의 침(鍼)을 그 침질이 실여서 도망하다가 서로 싸와서 주인사실과 도박을하다가 서로 싸와서 ...

失職한 孤兒 厭世自殺未遂

男便告訴한 少婦 疑問의 急死

嫌疑者로 本夫逮捕

【인천】 부천군 대부면 남리 ...

무서운世上!

개고자는 금반지 강탈

나종에는 土地를 騙取

美妓를미끼로 大金消費시키고

原動機와 作業機는 무엇보다도 양마ー에限함
양마ー 석유발동기
揚水와 排水할 時期가 되엇습니다 今年도 양마ー 폼푸를
양마ー바ー치칼폼푸
力武式製粉機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恩給 皮膚泌尿花柳科 醫學博士 渡邊晋
대극성광목 우리옷감
取消 昭和十一年六月廿六日 每日申報社南海支局
農具各種 鑛山用機械 合名會社 松田清商店
貨物自動車運轉手募集 太平貨物自動車部
漁具 秋岡商會
芳香原料 化粧品、飲料、水、菓子、洋酒、製藥、殺蟲、各種用 染料、無害色素一般 東華洋行
男女痳疾之靈藥 治痳球 救世藥館
金 銀 福 白 金 株式會社 石福商店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三千萬圓

ClibPDF - www.fastio.com

우리집뜰앞이나마당에도 가꿀수잇는야채

야채중에는따먹는시기가 가장길고가꾸기에맛이조하

요지시하중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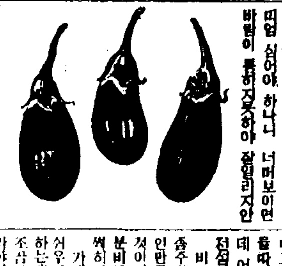
가지

채소중에는 가지(茄子)가 따러는 기간이 가장길뿐아니라 벼만장원 하원들러 말수잇는것이라 종묘로 가을에 서리가오후에까지 따먹을수잇는것이니 서리오후에 맛이더잇습니다 그만큼 맛잇는것이니가 빈말로하지말고 많이나 추라는말이잇지요

봄에심은 가지는 六、七月쯤 열리기 시작하는것이 七월에 한창이오 팔월에는 너머덥게되오로 종자와해졋다가 찬바람이불면 다시왕기를 시작하야 서리올때까지 계속하야 따먹게되는것이므로 야채로서 재배하기도 가장 재미잇는일입니다.

씨로부터 심을면五、六회는 모종을하야지마는 三회만하여도 좃습니다. 정식(定植)은먼저 날의예속남이七、八일사이를 정식을하면좃으니 이때는 벌서꽃망오리를 가지라는때입니다. 모종한지 四十여일이면 꽃이피나니 꽃이핀뒤에 三十여일이되면따먹게됩니다.

심으는 거리는 헐수잇으면떠업떠업 심어야 하나니 너머보이면 바람이 통하지못하야 잘열리지안습니다.



또가지는잎이넓사부석해지는것이니로 잎을그대로두면 가지열리는데 관계가잇으니까 북돋은 사정없이 따주어야합니다. 조선에서는 가지꼭을 따다가 김에퍼노코 사람들이많이밟어야 잘열린다고해서 시골등가에서는 가지밭을따서 길에다펴놓는 풍습이잇는데 어디법인지무엇때문에 이러난 전설인지 알수없는노릇입니다

비료로는 썩은오좀이나 거름을 좀주면되나니 자라는 기간이오래인만큼 비료도 비교적만히 먹는것이니까 때때로주어야 합니다 인분비료를 주지못하겟으면 깻묵을 썩히어 넣에다서 주어도좃습니다

가게에는 여러가지 병이따르기 쉬우니 이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는 가지씨가 성숙할때까지 조심도 변이틀거나 썩지안혼것이라야하나니 씨를보아서 고흔두른빛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심으는 땅에새를뿌리고 정식할때 석회질소(石灰窒素)를 뿌리고 흙을덮으면 땅에잇는 세균을 죽임으로 예방할수잇게됩니다.

반드시알어두어야할 내장(內臟)외과치료법 (下)

내장에병들어치료못하는것을 외과적으로고칠수잇는여러병

醫學博士 高明宇

아모다 알기쉬운 엇정이(上腸)(盲腸) 죽술이(大腸) 조밤순이통은 완통 벽이거나 바르거나 하여서뻐 낫지못한것을 수술로 잘고치는것이올흔 더잘아는일이나 그러나 뱃속이나 가슴속에 잇는 병이 더욱중한 외과병되는줄은 잘아는이가 만치못하여

수술로 잘고칠병을 약으로만 치료를 하다가 불행한 결과를 보는일이 만습니다. 예를들면 며칠전에 한어린아히를 데리고 진찰소에 온 부모가 잇엇습니다. 그아이의 병증세는 삼사일부터 복통이나며 대변을잘못보고 음식을먹으오면 토하여버린다고하야 복부를 만저보니 배속에 뭉치가 만저지기까지되엿으므로 자세히 진찰한결과 장중첩증이라고하는병인데 창자가 밀려들어가서 창자가 매혀버리는병입니다. 병원에 오기전에 삼사일의를 빼엇으므로 복부는 팽만하고 대변은 나오지못하여 고민중에잇섯습니다.

지금 곧 수술하면 고치수잇다고말하고 관계부모는 배를 떠다는 말을 듣고는 무말없이 데리고가버린일이 잇엇습니다. 그같이된 병에는 아이러한없는것은 신의하오도는 와장하이하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외과수술을 무서워하는 이가 만습니다.

불행 복부수술하고 사망하는환자도 없는바는아니나니 그이유는병이 이미 중한 환자와 또는쇠한병이라도 오래동안 그대로두어서 수술할 시기를 일허버린후에는 불의위험성이 잇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술할 병은 기다리지말고 수술하는것이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엄마 전에 시외어는동리에서 두사람이 어찌에 서로 발길로 차서 두사람이 다 복부를 채엇는데 그중한사람은 ○○○○○이 시작하여 수삼일한에 ○○○○ 장염으로 병원에와서 진찰한결과 창자가 ○○○(腸破裂)이엇습니다.

그리하아 개복을 하고 내부를 진찰하여보니 창자에 적은 구멍이 몃군데 터저서 그곳으로 창자속에 잇던 것이 흘러나와서 그같이 중한 화농성 복막염이된것이 엇습니다.

두사람이 발길에 채엇는데 이사람은 너만히 채여서 그같이된것이아니오 불행이 발길과 척수가마조치게된 까닭에 그사이에든 창자가 터지게된것입니다.

창자는에 구멍이나게 되엇습니다. 두사람이다 같은힘을가지고 한모양으로찻것마는 결과를보아서 한사람은 살인죄가 되는것입니다.

만일 그환자가 복부에 불편한 감각이 잇기시작한때에 즉시병원에와서 개복수술을하엿드면 창자에 적은구멍쯤은 봉합되어 잘나홀수잇는병이엇으니 자기도 살어나고 상대자도 살인죄인이 되지안하엿을것이나 내부에잇든 외과병이란 삼사일이 잇엇으므로 적당한 치료를 적당한때에 받지못하여 이같은 불행한결과를 보게된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장에 잇는병에 외과수술을 하여야 하나냐 하면 一一히 그병명을 들어서 설명하기어려우나 대강 몃가지의 병을 아래에 기록하고 따라서 간단히 설명하려한다.

늑막염은 가슴과 폐장사이에 염증을발하여 중하게되면 화농성 늑막염이되며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장병은 연통을싸고잇는 주머니가 염증을발하며 숨이게되는 환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간장염은 흔이 간장속에 고름이드는병이니 수술이필요합니다.

담낭병은 쓸개통에 고름이생기는병이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담석증은 쓸개통이나서가서 창자로내려가는 길에 돌(石)이생기는병이니 (소에서서발생하면)수술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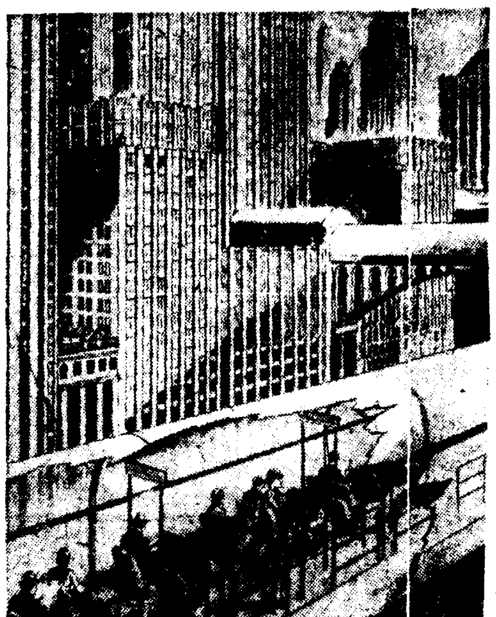
복내종양(腹內腫瘍)은 부인에세 발생하는 난소난종과 기타자궁종양으로 상자가 맥히는병인데 너무들른하고 입속이 수술할필요가잇습니다.

장폐색증(腸閉塞症)은 여러가지원인으로 창자가 맥히는병인데 속히수술하시안으면 생명에위험합니다.

복막염은 배속에 여러가지염증성 심병으로복부안에 고름이생기는병이니 속히수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충양돌기염 또는 맹장염은 대장과소장이맛붙은 곳에 흔이세균이건러잇다가 염증을발하는 병이니 일즉이수술할수록 안전하며 오래기다릴수록 위험합니다.

탈장증(脫腸症)은 창자가복벽의 근육을찢어트리고피부밑으로나오는병이니 수술하지안하고두는것은위험합니다. 끝



← **공중전차** →

미국에서 최근설계해본 공중전차인데 장내에 잇어서는 이북잡한시면에서 어숩저녁 전차로 사람을 운반하는니보다 공중전차로 운반할수잇으리라는것입니다. 만일이것이 실현되는날이면 한시간에 二十만명을 운반할수잇으리라고요. 누가압니까 비행기가 생긴것을보면 실현될날이 잇을것입니다 (사진은장내의공중전차운반하는광경)

해수욕가들의복음

여름이되면 절대가인들이 해수욕을하고싶으나 살이걷어서 취아못하겟다는 근심이 적지안을이때 미국에서는 법서실행되는 방법이잇답니다 세로판이라는것을 머리에서부터 내리쓰고잇으면 아모리뜨거워도 살이걷지를안는다니좋지요 세로판이라는것은 알기쉽게말하면 무명제되는것으로 파자싸는것이잇지안아요? 그것입니다 (사진은 세로판을 뒤집어쓴 양기씨시탑)

교육상적지안흔문제 어린애의싸움

쌈에방하는상벌의공평 (6)

이상여러날을두고 말습하여온 어린이의싸움은 실상그리 큰문제가아니어서 싸울때는 몸에상처가아니나는 이상 나자단세싸우도록 버려둘것이지마는 그러타구해서 싸우는것을 상습으로 버려둘수는 없는 것이니 부형이나 학교선생님이 이전아이들의 싸움하는것을 예방하는데는 반드시 상벌을(賞罰)이 따르는것이니 이상법문제가 또한 아이교육하는데 큰문제이어서 우리는 이문제에근 관심을가지지안흘수없는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상벌문제를 어떠케 취급할것인가를 여러분과함께 연구해보고저 합니다.

어떠케 말하자면 벌을줄수는데 세가지 계단이잇으니

(一)공평하자는벌

이것은 최전적로서 만일어린애가 어른을 괴롭게하엿다면 그벌로 어린애에게 괴롬을주어 괴로움을평평하게 공평하게한흐라고하는것이니 이러때 태도의네가릴것으면 나도 너를때리겟서입니다 예를들어말하면 집에어린이가 실수를해서 귀한그릇을 깨트렷을때 어머니는 그그릇깨트린것이 너머 아까운남어지에 이나서 아이의과실로 생각할사이가없이 깨트린것이 억압나는김에 뜻잡고 마우드러 주어서 그것깨트린 손해를 때리는것으로 또는 분푸리하는것으로 손해를공평하게 하자는 인식에행동은 아니라하더라도 이것이 태도로하면 두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다른결과를 내는것이니 전자는 자기를 실토록 맨드는것이오 후자는 자는것이 조타는것을 암세맨는것이 됩니다.

그와같은 결과는 어린애가 그다음에는 무서워서 나 붕시에 그는복수할생각를 받게되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이법의결과는 어린애가 그 보이라하는 태도는 벌할수없는것입니다.

(二)공포심주는벌

제이계단으로는 벌줄주어서아이로하여금 공포심을 주어그다음에는 무서워서 못하게하는법이니 이도그리신통치 못한것입니다. 예를들면 어떤아이가 어머니없는때 무엇을 하라도없이 벼장에서 꺼내먹엇을때 이것을안 어머니는 몹시 때리고 무섭게하나니이러게하면 어떠케해서든지 들키지안코 꺼내먹을 방법을 연구하야 거죽으로는 아니먹은체하야도 나뿐지혜가늘어서 만흔수중에서는 하나도 물쯤먹고 안먹은체하는 수단을부리게되나니 무서워하는데는 틀림없으나 신통한 결과는 보지못하는것입니다.

(三) 개선하자는벌

셋재 태도는 세가지중에 오직 참 곤난한일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기에 예하여가도 어렵거니와 실행하기에 도하려는 법이니 이것은 누구나 이것한가지를 부모는 택할만한데 도이니 아동을 좀더 조혼길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들면 어떠어머니는 아이를 꾸지절때 『너는 아주 몹쓸것이다』 하는등 일렷으니 저녁이되거든 좀 꾸짖었다고 부리면서 종일토록 아이를 국성을 부리게되니 그리고 이제 자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꾸지람이면서 지혜잇는 어머니는 『너는 오늘아침부터 이제껏 놀고다니는라고 얼마나 고단하겟구나』하는것이 보통누구나 하는말이니 어린애가 말을안듯고 다니는것이 귀치안어 벌로잠을 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꾸지람이 구나 좀두어서쉬면 기분도 조흘것이다. 자고나서 또다시 놀아라

라디오

六月三十日(火)

▼六時三十分 라디오世界一週旅行 (二) 培材高普 辛鳳祚
▼七時 經典解說 尹乙洙
▼八時 講演 演劇과人生 柳致眞
▼八時三十分 唱劇 一、短歌二、燕主明市賣二、서울觀文宗實物 崔星彬
▼八時五十分(東) 피아노獨奏 英雄變奏曲 金쁘 파뤼
▼八時三十分 唱劇調 一、短歌 老人歌二、唱劇調沈淸歌 方聖敦
▼十一時 레코-드音樂 (波長變更試驗放送)
歌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六時(仙)傳說物語 若木山 六時二十五分(東)靑年の時間 各國の學生生活 一、加奈陀と僕のハイスクール 二、滿洲に於ける學生生活 三、シャムの學生生活 四、ハワイと日系學生 五、ジャバに於ける學生生活 六、私の學生生活 七、米國加州の教育▲七時三十分 漫談と合唱▲八時外科手術と講演▲八時三十分(東)浪花節 鞍安太平記外傳 著籍水戶引退し▲九時五分(東)ピアノ獨奏 英雄變奏曲

七月一日(水)

▼午前六時 라디오體操
▼午後零時五分 俗曲
安쁘 池月九 細語 高敬得 短篇 崔喜成
▼三時十五分 婦人時間 「시어한 여름料理몇가지」 尹德喜
▼六時三十分 童話 中央保育學園會
▼七時 衛外講座 (一) 「民謠의生活」 金東河
▼八時 中繼 「漢江江邊으로부터中繼」 (全國中繼)
▼八時二十分 唱劇 春香傳
▼九時 赤壁歌外 吳太石 外
一、赤壁歌二、執杖歌三、제비가四、小春香歌
▼九時三十分 管絃樂 (레코-드演奏)
一、組曲 「火鳥」……스트라빙스키作曲 序曲 火鳥의춤 公主의춤 카스체이王외춤 자장가 終曲
二、前奏曲 A音頭スト長調……쇼스타코윗치作曲

第一放送

▲六時三十分(東)兒童講座 四ノ五 山田勝▲七時○一分 能 鞠の餘香 …… 狂言 一八坂 七時三十分 家庭講座 「すーた心遺ひ」 …… 午後零時五分(東)落語 …… 二時(東)婦人講座 上 …… 六時二十五分(東)…… 朝鮮の棉花栽培と朝鮮貿易▲八時中繼 …… 八時二十分(東)謠曲

七月二日(木)

▼午前六時 라디오體操
▼午前零時五分 俚謠 歌唱
一、短歌 「흥타령」 二、滿中歌 三、赤壁歌

▼三時十五分 歌手 崔元淑 …… 婦人時間 「어린이의어물들」 鮮于全
▼六時三十分 …… 韓相穰
▼六時 …… 張起昌
▼八時 …… 安鍾和外
▼八時三十分 …… 金秋月
▼九時 …… 崔圓子
▼九時三十分 歌謠 趙點紅 金鳳仙 金永濟

白蓮流轉記 (106)

尹白南 作 / 李靑田 畵

十一、풍파(風波) 四

제이수의입에서 구경하던 선유객들도 때린 외 무신(武臣)에 대접에 없어 어행중을 물으려오거니와 종군영 군 때문에 헤어날길에 초조하게 기다려 다.

「무주업 생겼네」 하고 떠드는 소리는 요란한의 징신을 더욱 어지럽게하야 주엇다. 어느 죽업이나 죽업에 잇어서 차별이 잇을것같지 안치마는 무주업은 어느점으로 보던지 정피하고 아까운죽업이다.

기생에게 마저서 물에빠져죽은 천덕기의 죽업도 정피한 죽업이 아니라고할수없는동시에 편양에 시 조신하는 사람이지마는 자기는 제이수는 재산도잇으려니와 뜻 한명망이던 벼련이가 종군영교 들에게 마저서 물에빠저죽엇다면 안까다고도하려니와 종군영군교는 인 평양부중백성의 원성의 초점이되고 말것이다.

군교들은 안파으로 크게 말은 문고말게되엇다.

안으로는 동관하나를 일헛으니 원망과 호령과 부아드를 면치못하게되엇고 밖으로는 백성들에게 종군영은 부랑패자의 마음이오 소굴이라는 비평을 면치못하게되엇다.

그러타고 도수인을 만드러노코 그대로 도수할주도 없어서 여러 사공을 동원하야 시체나마 건지러하엿지마는 벼련의 시체는 어디로 흘러갓는지 차질수없엇다.

약 한시간동안에 전력기의 시체는 현장에서 약 사오십간 떠러진곳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왓다.

그러자 이순문이 상류에서 잘당으로 돌고잇든 종군영상하의 거에 들어가게되매 이종군은 크게 놀라서 하류현장으로 행선을 시키엇다.

서뿌른 기생 다흠으로 유위한 부하하나를 일흔것이 무색도하려니와 창피하기도하엿다.

하류로 나려온 이종군은 현장에서 사실을 조사하엿다.

군교들의 배를 에워싸고잇던 선유객중도 이종군의 배가 오는 것을 보고는 슬금슬금 피하여버리엇다.

현장에 잇다가 무슨 봉병이 떨어질다고 얼른 불쌍한 뒤지안하엿다가 자기부하의 보부를 들드라도 천덕기는 벼련이 죽인것이 분명하지마는 그가 죽인이상 그 보부러질 할도리가 없엇다.

그래서 그는 실사상은 아모리 도없는 계아수를 잡어다가 어떠 으로 벌인으로 만들생각이엇다.

설혹 그에게 충분한 체형을 줄수 없다면 벌인으로 만들경우가 생길지라도 그가 재산가이니만큼 천덕기의 유족에게대한 위자금이라도 빼서주리라하는 심지이엇다.

「저놈 어여라」

이중군은 눈을 부라리며 부하군교에게 호령하며 턱으로 계하수를 가르친다.

「내가? 저놈 말버릇 바라저런 괘심한놈이 잇나 병졸 여지못하느냐」

이중군은 펄펄뛰엇다.

제해수는 원성은 극히 양전하시체하면 한번 목숨이 나기 지마는 그대신 한편 호통을 쳐이러지를 벽셔하엿다.

그는 일사남 내빼든 맘만은 더시 조신하는 사람이 하엿다.

이중군은 일행 사실을 조사하는 계하수와의 배에 떠난것은 「그시에 계하수 하나도 충속하고 계하수 이하 젊은사람 몇들을 잡아 자기배로 옴기엇다.

계하수는 몸에 생채기 하나도 없이 무사하엿지마는 두 젊은사람은 한신에 유혈이 낭자하엿다.

쌀섬 (米島) (53)

동화 金圭銀

그런데 그 쐐벌노인이 노랏다는 그섬은 봉기와 볼 밑으로아수 쑥 지나가서 쌀섬은 그탑과도밖에 빠저나갈수 없게 되엇는데그탈구가 또어떠케 좁은지 거둔 거드레기 쌀섬은 노맛지빠저나갈수가 없어서 이리 뚤구지리볼고 하며 애쓰는동안에 자남한 어디보기 섬엣 쌀섬은 잔신만큼 좁은 구탐구멍을 요리 조리 쏙쏙 빠저서 거드레기 쌀섬 팍대기에 올라가서는 바 안새를 날렷습니다.

그래서 거드레기는 그만 지고 말엇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거드레기는 어쩌게 진것에 너무도 분해서 일즉 일어나서 또어디보기 보고소리치기를

「어저께는 내 쌀섬이 좁은 그 탈구멍을 째어 건너갈수 없는데 섬이 커서 젓는데 오늘 쌀섬이그탈 구멍을 뚤고 건너와서 이번에는 이쪽 섬안은 뽑에서 좀 싸워보자!」 햇습니다.

어디보기는 또 마지 못해서 쌀들을 바다섬에 띠어버리고 거드레기와 섬으로 건너가서 누가지 쌀섬은 한치도 못되는 일흔섬에서싸움을시작햇습니다.

그러나 거드레기의 쌀섬은 크게 굼게 되엇습니다. 그섬은 이 너무 야아노하니 그 좁은 쌀틈이 노맛지 마음대로 날 우에 다니며 싸움을 할수없을뿐 아니라 자꾸 틈밑에 갈엇기만 햇습니다.

자탐한 어디보기 쌀섬은 잡것만침 가벼워서 갈엇지도 안코 날세게 요리 조리 쏘다 갓다 하며 싸워서 거드레기 쌀섬을 마 쓸러주엇습니다.

그래서 거드레기는 또 분한 눈물을 흘리며 섯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거드레기는 또 어디보기 보고 소리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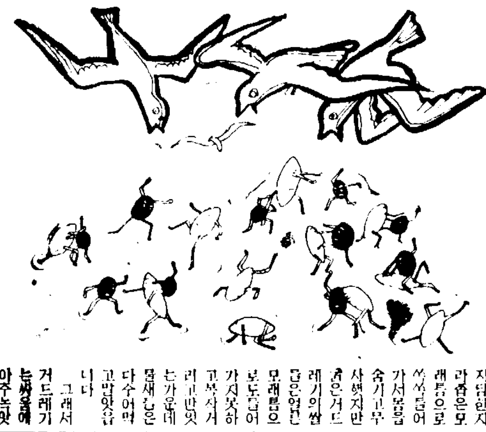
「그저께는 날이 너무 추어서 젓고 어제는 너무 더워서 젓으니 오늘은 날이 아주 업는 보래우에서 한번 해보사!」 고 햇습니다.

어디보기는 두번이나 이긴것이 너무 깨서서 또 쌀들을 몰아가지고 서드레기섬으로 건너갓습니다.

그래서 누가지 쌀섬은 모래 우에서 서로 수자 사자 하고 싸홈을 하고 잇엇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공중으로 날새매들이 우룩웅하고 지나가다가 모래 우에서 쌀들이 싸우는것을 보고

「이거 웬 쌀이 이리 만흐냐? 시장한테 우선 좀 먹자!」 하고 수천마리가 우루루 내려앉더니만 쪼아먹기 시작햇습니다.



그래서 쌀들은 모두 숨을 구멍을 찾고 잇는데 어디보기 쌀들은 자그맛한지라 좁은모래틈으로 쏙쏙 들어 숨기고 무섭게 가서 몸을 숨겨버리지만 거드레기 쌀들은 큰모래들 모래틈으로 파고 들어가려고만 가지못하고 다수어야 고만 잡아먹혀 버리고 말엇습니다.

그래서 거드레기 쌀들은 모두 숨을 구멍을 분아니라 이제는 먹을쌀조차 아주 논이 없는 싸움에 거드레기는 다 없어지고 말앗습니다 거드레기는 인제는 아주 죽엇다고 앉아서 울고 잇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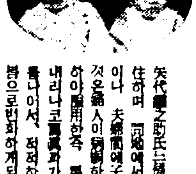
그때에 백발노인이 또나타나서 「거드레기야! 네가 먹는 쌀은 빛깔이 히어서 보기는 하나 요잠 싸움은 구또 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 이기지 못햇으나 앞으로 쌀들이 이기게될것이다」

그래서 거드레기는 엇재 엇재 씨앗을 다시 잡으로 들어가고 남에게 먹히고 싶다고 하는 「입쌀」 이라고 할 구멍 모래 구멍이라도 능히 들어가는것을 보니 「좁쌀」 이었습니다.

百萬圓보다도 貴한쌍동이

矢代德之助氏談

矢代德之助氏는 東京北區王子町에서 生하고 ○○에서 多年商業을 經營하든 이나 夫婦間에 子女가 업서 ○○하여 命之母를 服用한 결과 ○○○하야 今年三月에는 雙生兒를 分娩하엿습니다 …… 命之母의 效能 ……



婦人病 대하증에

女子醫學博士가 體驗하고 推奬한 內服藥·命之母 外用藥오기나球

대하증이라는것은 月經以外에 …… 子宮內膜炎 …… 命之母 …… 오기나球 ……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데리 輸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腦神經衰弱과産前産後의婦人에게大効함

藥價 六日分 …… 二十日分 …… 三十五日分 ……

東京市京橋區八丁堀 命之母本舖 ○○○○藥房

七大學醫學博士가推奬하는 오기나球 …… 京城府南大門通 …… 로 바로 申込하시라

統制參謀本部案 實行키는至難한問題

[illegible] 그러나 그들의 [illegible] 그[illegible]이 나타남이엇다。

[illegible] 이리하야 [illegible]

自由市場閉鎖나 春繭共販不振

仲買人의產地高價買入으로 自繩自縛의製絲家

[illegible]

下旬貿易 入超一百九十萬圓

輸出	七六、七五一
輸入	八〇、七一九
入超	一、九六八

中國稅關 五分附加稅

[illegible]

百貨店의 公休日늘리라

[illegible]

米日爲替

[illegible]

勸銀、農銀等 不動產擔保利下

[illegible]

運賃協定成立 朝鮮側荷主讓步로 今日中에細目協定

[illegible]

印度政府의 關稅引上眞相

[illegible]

朝鮮銀券發行高

自六月二十一日 至六月二十七日

[illegible]

重油輸入으로 三菱續行決定

[illegible]

朝銀地金買上 一日平均十五萬圓

[illegible]

漁業用油 購入協議會

[illegible]

日滿工業 所有權條約 今日調印式

[illegible]

補助金制度設定 特殊鑛開發에努力 鑛山課獎勵方針講究

[illegible]

白米不賣問題로 商地荷主가協議

[illegible]

二府八縣米穀買上量

[illegible]

咸南電氣의 統制完了

[illegible]

今日의市況 六月三十日

株式 (單位十錢)	正米 (三等單位)
期米 (單位圓)	商品 (單位十錢)

[illegible]

時勢와市況 株式 떠러진채 保合

前場低迷

[illegible]

朝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後場同調

[illegible]

朝取短期後場步調

[illegible]

新甫觀望 閣議를重視

[illegible]

弱氣觀測一面 大强氣論潛在

[illegible]

財◆海◆餘◆波

[illegible]

財界瑣信

[illegible]

大阪市場休會

[illegible]

實物賣買價前場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illegible]

期米 鈍重히 納會

前場伸惱

[illegible]

九限新甫의鞘 至極薄鞘豫想

[illegible]

米豆餘聞

[illegible]

大取組로越月 來月가서勝負

[illegible]

各限儀合

[illegible]

正米 大邱先導 續落

京城小高

[illegible]

仁川小康

[illegible]

釜山保合

[illegible]

大邱續落

[illegible]

群山小强

[illegible]

木浦不變

[illegible]

內外金銀時勢 (六月三十日)

海外金銀 (廿九日)

[illegible]

東京金銀 (特電)

[illegible]

京城金銀

[illegible]

各地新甫納 全部下鞘를豫想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金融

[illegible]

商品

[illegible]

株式

[illegible]

期米

[illegible]

正米

[illegible]

土金 福 石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白金·地金部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